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붉은 영산홍 같은 시절



김 경 택_ 서울대 국사학과 74학번. 웅진출판사 편집차장, 시계잡출판사 기획실장, 한솔교육 전무이사, (주)그레이트북스 대표이사(현)

긴급조치9호! 내 청춘에 숙명 같은 굴레였다. 대통령 긴급조치9호라는 악령(惡令)이 발령된 그 해 5월, 새로 이사온 관악산의 신록은 유난히 푸르렀다. 그러나 허허벌판 공릉동의 교양과정부에서 갖가지 시국사건과 신입생 시절의 분방함으로 어수선했던 1년을 보내고 관악산 자락에서 새로 시작된 대학생활은 황량하기 짝이 없었다. 새 캠퍼스는 거창한 규모 만큼이나 낯설었고, 대학 캠퍼스답지 않게 획일적으로 지어진 각 동의 건물 모습에서는 냉랭한 기운마저 풍겼다. 75년 들어 신문은 연일 터지는 시국사건으로 도배질이 됐고, 개학과 함께 관악산에서 유신체제의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으며, 급기야 서울농대 선배 김상진 열사의 자결 소식이 전해졌다. 그런 끝에 긴급조치9호가 발포됐고, 이를 비롯듯이 바로 뒤이어 소위 5·22데모가 벌어졌다. 학우들이 대량으로 구속되거나 학사 징계를 받고난 캠퍼스는 마치 폐허 같은 분위기였다.

5·22데모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장이 윤천주 씨로 바뀌었는데, 그는 폐허가 된 무대 위의 뼈에로였다. 대학 총장이란 사람이 날마다 캠퍼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잔디밭에서 포커히는 학생들을 잡아서 훈계를 하지 않나, 장발 단속 한답시고 학생들과 실랑이를 하지 않나,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풍경이 연출되고 있었다. P대학에서 저런 모습으로 활약(?)하여 데모 없는 대학을 만든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대 총장으로 옮겨왔다는 풍문이 나돌던 공화당 사무총장 경력의 그를 보면서 학교 다닐 맛이 싹 가시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긴급조치의 악령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다. 소위 자유와 지성의 광장이라는 대학 캠퍼스에 온갖 째새들(?)이 떼지어 돌아다니며 우리를 주시했고, 교수들은 자중자애라는 미명하에 사회현실에 대한 침묵과 무관심을 암묵적인 보신책으로 삼았다. 학생회가 없어지고 학도호국단이라는 준군사조직이 만들어져 공개적인 모든 학생활동이 일일이 통제되었다. 내 마음 속에는 까닭 모를 응어리가 쌓이고 메시에 시니컬해졌다. 교수들의 강의가 시뻘잡았고, 자신의 언행에 무의식적으로 자기검열을 하고 있는 모습에 짜증이 났다. 그야말로 정신적 암흑시대였다.

이런 답답함을 풀어주는 유일한 탈출구가 1학년 때 가입하게 된 국제경제학회(약칭 국제회)라는 이념서클이었다. 변변한 선배의 지도는 없었지만, 당시 이념서클들이 공통적으로 읽게 되는 우리 근현대사나 사회현실 등을 분석한 사회과학 서적들이 현실에 대한 지적 갈증을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해 주었다. 우리시대의 고전이었던 이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나 박현채 선생의 <민족경제론> 같은 책들이 우리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일본 책으로 <사회과학입문>, <현대의 휴머니즘>, <뚝-스위지는쟁>, <철학강좌> 등을 읽으며 사상적인 모색을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기본적인 개론서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때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우리 현실과 세계에 대해 내 나름대로의 안목을 키워간다는 지적 자신감을 갖기도 했다. 그것은 나를 떠받치는 가둥이었고, 학교 다닐 맛을 주었다.

긴급조치 하의 학교 상황은 5·22데모 이후 긴 침묵기로 들어섰다. 긴급조치9호란 박정희가 영구집권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불사할 것이며 반대하는 어떤 정치적 움직임도 폭력적으로 짓밟겠다는 분명한 신호였고, 데모하면 바로 구속되는 엄혹한 상황에서 학생신분을 벗어 던지고 투옥을 불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서 우리는 자신들의 왜소함과 나약함을 통감하였고, 정치적 민주화도 사회적 평등도 민중들의 각성에 기반한 대중운동을 통해야만 가능하다는 생각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데모하여 징역 살고 정치범으로 찍혀 계속 감시를 받기보다는 사찰당국에 드러나지 않은 깨끗한(?) 신분으로 노동현

장으로 들어가 노동자들의 의식화와 조직화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사회변혁을 모색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어갔다. 이른바 현장론, 준비론이 대두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론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학생세력이 담당해야 할 몫이 있고, 또 사회변혁은 각각의 세력이 각자의 현실에서 투쟁하는 가운데 가능한 것인데, 학생으로서 현장운동을 준비하기 위해 투쟁을 유보하는 것은 당면한 투쟁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반박이었다. 이런 비판은 학우들의 마음에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어처구니없는 불의의 현실과 이를 바로잡겠다는 열정 속에 그 방법론을 찾으면서 비롯된 논란은 우리들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3학년 여름쯤으로 기억되는데 학교 근처 한탄강변(관악캠퍼스 앞으로 흐르는 개천을 우리는 그렇게 불렀다)에서 술을 마시다 고교 후배이자 같은 학우였던 양춘승이 이런 상황에 데모 한 번 못하고 무기력해 있는 자신을 죽도록 두들겨 패달라며 달려들어서 같이 부둥켜안고 울었던 적도 있었다.

그런 논쟁 속에서 나의 생각은 또 달랐다. 나는 우리 사회의 변혁은 결코 혁명적인 과정으로 풀리기도 어렵고 또 노동자·농민의 힘만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처럼 민중들의 힘이 아직 조직화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많은 중간계층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고, 그래서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언론, 학술, 문인 등등의 지식인운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나는 졸업을 하고 노동현장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더 하고 싶었다. 꼭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천적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념적인 변혁론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 식견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야 나를 추스릴 수 있고, 남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당시의 현실은 그런 나의 바람도 뜻대로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1976년 겨울, 졸업을 앞둔 73학번 선배 박석운, 이범영, 백계문 형들이 데모를 시도하다 선언문도 제대로 뿌리지 못하고 끌려가는 모습을 울분 속에 지켜봐야 했다. 이 선배들의 장렬한 전사(?)는 4학년이 되는 우리들에게 그 자체로 많은 메시지를 남겼다. 더이상 내일의 일을 내세워 오늘의 투쟁을 방기해서는 안 되며, 어떻게 해서든 박정희 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77년 3월에 접어들어 양춘승, 김천우, 김찬우가 데모를 시도하다 끌려가고 말았다. 서로

사전 논의는 없었지만, 이후 학생운동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는 남아 있는 우리들의 당연한 문제였다. 4월에는 김재명, 오세범, 정의현이 또 데모를 시도하다 끌려갔고, 학내외 운동 상황을 두루 살피며 동분서주하던 김창우도 다른 대학의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돼 버렸다. 참으로 참담한 한 학기였다. 데모를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큰 결단이 필요한 데다, 1백여 명에 가까운 사복 경찰이 캠퍼스 안에 여기저기 상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까지 예로 보아 데모를 하기 위해 학생들을 모으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상황을 뒤로 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일이 편안할 수 없었다. 그동안 서클 후배들을 구속된 선배와 학우들의 재판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전체적인 투쟁 분위기를 유지하고자 안간힘을 썼지만 그것만으로 박정희 타도투쟁의 전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답답한 속에 2학기에 접어들었고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학내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열렸다. 10월 7일, 사회학과 3학년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한 학술심포지움을 학교 당국이 강제로 무산시키려 하자 심포지움 장소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유신철폐를 외치는 농성투쟁을 전개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사전에 준비된 것은 아니었지만, 농성장에 있던 4백여 명 학생들 전원이 경찰에 연행됨으로써 캠퍼스 전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또 순수한 학술행사까지도 학교 당국이 자의적으로 금지시키려 했다는 점이 학생들 전체의 분노를 샀고, 또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학생들이 이런저런 구실로 억울하게 처벌되었다는 점도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런 상황이 내 눈에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비춰졌고, 다른 한편으론 커다란 짐으로 다가왔다. 75년 이후 2년여 동안 침묵 속에 속으로만 들끓었던 분노가 분출되기 시작한 가운데, 철벽 같던 박정희의 유신체제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예감과 함께 이 상황을 잘 고조시켜 78년으로 넘겨야 한다는 숙제가 던져진 셈이었다. 그동안 운동상황을 함께 점검하며 친하게 지내던 장기영과 머리를 맞대고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를 거듭했다. 77년 가을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점에 서로 동의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고조시킬 것인가.

이때 내 머리 속을 지배한 것은 더이상 선언문조차 읽지 못한 채 경찰에 끌려가는 데모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 경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 공간을 확보하고 선

언문을 낭독하면 당시의 분위기로는 시위가 훨씬 크게 증폭될 수 있으며, 정치적 파괴력도 클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도서관의 점거였다. 도서관을 어떻게 점거할 것인가? 캠퍼스 곳곳에 사복경찰이 늘 때지어 깔려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 점거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다른 한편 관악캠퍼스의 넓은 공간을 잘 활용하고 심포지움사건으로 격앙되어 있는 학생들의 분위기를 살린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 성동격서 전법을 쓰자'. 그때까지는 주로 인문대·사회대가 있는 5동 앞에서 시위를 벌였기 때문에 이 곳이 요주의 지역이었고 경찰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우측에 있는 5동 앞만이 아니라 도서관 좌측에 있는 학생회관의 식당까지를 잘 활용한다면 도서관 점거가 가능하고 시위의 범위도 확산시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회관 식당 앞에서 1차 시위를 일으켜 학교 안의 모든 경찰을 불러모은 다음, 5~10분의 시차를 두고 5동 앞에서 2차 시위를 일으켜 그 시위대를 끌고 도서관으로 진입하여 도서관 3층의 열람실을 점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성동격서가 되는 셈이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회관 식당의 시위는 바둑으로 치면 사석이 되는 것이고 중앙도서관에서 핸드미크를 들고 정면의 아크로폴리스에 운집해 있을 학생들을 선동할 수 있으리라는 복안이었다. 이런 구상을 세우고 장기영과 의논했더니 가능하겠다고 동의했다.

이런 작전을 실행하자면 5동 앞 2명, 학생식당 2명, 도서관 1, 2명, 그래서 최소한 5, 6명이 필요했다. '이 실행에 동참할 멤버 5, 6명의 친구들을 어떻게 모으냐.' 가장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졸업을 앞둔 4학년 친구들이 나서야 하는데 모두들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다. 또 막상 1대1로 교섭할 경우 다행히 동참하게 되면 좋은 일이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절할 경우 그 친구가 안아야 할 마음의 짐도 적은 것은 아닌 일이었다. 그래서 10월 중순경 그동안 이념서클 활동을 같이 했던 74학번 친구들을 모두 모아서 현재의 학내 상황과 나 자신의 결심을 밝히고 행동을 같이 할 친구들은 다음날 삼청공원 입구의 화장실 앞에서 보자고 제안했다. 당시는 워낙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집중적인 사찰이 심했던 때라 시내의 장소보다는 호젓한 삼청공원이 눈에 띄지 않고 안전하리라고 보았다. 다음날 장기영과 삼청공원으로 나가 보니 문성훈과 권형택이 비장한 모습으로 나와 있었다. '이제 4명은 됐다.' 정말로 고맙고 마음 든든한 기분이었다. 그 자리에서 실행계획을 설명하고 1, 2명을 더 모으기 위해

각자가 보안이 유지되는 선에서 가능성 있는 친구들을 교섭하자고 제안했다. 며칠 후 권형택이 같은 농법회의 74학번 양기운과 75학번 연성만이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전해왔다. 국사학과 후배이기도 했던 75학번 연성만은 3학년이어서 동참시켜도 될 것인가로 논의가 많았지만, 어차피 78년에는 75학번들이 투쟁의 중심에 서야 할텐데 이번 데모에 한 명쯤 동참하는 것이 75학번에게 던지는 파장도 있으리라고 모두들 입을 모았다. 그래서 연성만이 합류하면서 그 특유의 너살과 유머로 팀의 분위기를 살리고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 시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직 당국의 감시망에는 올라 있지 않지만 투쟁의식이 높은 각 서클의 1, 2학년이 초기단계에서 시위대의 핵을 형성해줘야 한다는 판단 하에 그들이 집단으로 교련수업을 마치고 학생식당으로 향하는 날의 점심시간을 D-데이 H-이워로 잡기로 의견을 모았다. 11월 11일 12시 55분은 그렇게 택일되었다. 그리고 5동 앞 시위는 장기영과 권형택이, 학생식당은 최대한 오래 버텨줘야 하기에 덩치 좋은 양기운과 문성훈이, 도서관은 나와 연성만이 맡기로 했다.

11월 11일 아침 비장한 마음으로 학교로 향했다. 고향의 부모님께는 장문의 편지를 써서 불효의 용서를 빌었다. 아버님께서도 당신의 삶 자체가 우리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숭한 시련을 겪으신 분이려 평소에 이해가 많았지만, 그래도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부모님 얼굴이었다. 떠오르는 부모님의 모습을 '그래 박정희 독재와 정면으로 싸우자'는 결심으로 애써 지웠다. 11시쯤 도서관 3층 열람실로 들어가 정면에 내려다 보이는 아크로폴리스를 중심으로 좌측의 학생회관과 우측의 인문관, 사회관 앞을 살펴보았다. 청명한 가을 햇살 아래 여기저기 곱게 단풍이 물든 캠퍼스는 한 시간 후의 소동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느 때처럼 평온하기만 했다. 청운의 꿈을 안고 시작한 4년 동안의 대학생활이 상념 속에 스쳐갔다. 3학년 때 유진권 선배가 함께 데모하기를 권하면서 "박정희독재가 끝나면 우리 함께 다시 공부하자"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 그때 까지 내 꿈을 잠시 접자.'

이런 상념도 잠시, 12시 55분이 넘자 예정대로 학생회관 식당 안에서 시위가 벌어져 학교 안의 모든 사복경찰들이 식당으로 달려갔고 학생들이 운집하기 시작했다. 양기운과 문성훈은 경찰에 연행됐는지 보이지 않고 주동자도 없는 채로 시위군중이 불어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5동 앞에서는 시위대 자체가 모아지질 않아 장기영이 당황하고 있었다.

작전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그런 상황을 직감한 연성만이 도서관 밖으로 달려가 학생식당 앞에 모인 시위대를 끌고 도서관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5동 앞에 있던 장기영도 사태를 파악하고 재빨리 도서관으로 들어왔다. 2백여 명의 시위학생이 3층 열람실로 들어차자 곧 방화철문을 잠그고 책걸상으로 방벽을 쳤다. 그런대로 상황은 성공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연성만이 바로 3층 열람실 창문을 열고 아크로폴리스에 모여 있는 시위군중을 향해 핸드마이크로 민주구국선언문을 여유있게 낭독하기 시작했다. 장기영이 열람실로 들어온 학우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이 자리를 지키자고 설명하였다. 일단 작전은 성공한 셈이었다. 적어도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열람실의 방화철문을 부수고 진입하기까지 우리는 안전한 위치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위를 지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참으로 감개무량한 순간이었다. 마음 속으로 자, 박정희 듣거라, 내 여기 있노라를 외치며 창 밖으로 선언문과 결의사항을 빈갈아 낭독했다.

학생회관과 아크로폴리스에 운집한 3천 명에 가까운 시위대는 오후 6시가 되도록 경찰의 최루탄과 체포를 피해 여기저기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6시가 넘어 시위대가 흩어지기 시작하자 경찰은 열람실 3층의 방화철문을 큰 나무등치로 부수기 시작했다. 마치 옛날 성문을 부수는 장면을 연상시켰다. 그래도 문이 열리지 않자 문틈으로 최루탄을 쏘아대면서 용접기로 철문을 절단하였다. 땅거미가 지는 저녁 7시 무렵 나와 장기영, 연성만은 매캐한 최루가스 속에서 진압한 경찰들에게 체포되었고 열람실에 있던 학우들 전원이 전경차에 실렸다. 우리를 실은 전경차는 어둠이 깔린 캠퍼스를 지나 가파른 봉천동 고개길을 올라갔다. 버스가 고개마루에 올랐을 때 저멀리 봉천동 시가지에는 저녁 불빛이 명멸하고 있었고, 여기저기 붉은 네온의 십자가가 선연하게 눈에 들어왔다. 예수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랐는데..., 영어의 몸으로 봉천동 고개를 넘는 나의 길은 어디로 이어질까.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와 당당한 해방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빛과 어둠이 되어 나를 감쌌다. 붉은 영산홍꽃 같던 대학 시절을 나는 그렇게 마감했다.

77년의 11·11사건은 시위의 규모가 컸던 만큼 그에 따른 희생도 컸다. 처음부터 같이 주동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시위에 참여하여 투쟁을 이끌었던 많은 학우

들이 투옥되거나 학사징계를 당했다. 학생회관 식당에서 농법회 선배 양기운이 선언문을 낭독하다 경찰에 끌려가는 것을 보다 분노를 참지 못하여 교련복을 벗어던지고 경찰에 달려들었던 진재학(당시 교육계열 1학년, 한겨레신문사 사회부장)과 같은 전주 출신의 양기운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연행 경찰에게 식당의 철제 의자를 던졌던 신희백(당시 서양사학과 4학년), 선후배나 당국으로부터 장차 학생운동의 큰 재목으로 주목받다 3층 열람실에 동참하게 됐던 김부겸(당시 정치학과 3학년, 현 열린우리당 의원), 심포지움사건 때 농성에 참가한 후 열람실 3층에도 동참했던 여균동(당시 인문계열 1학년, 영화감독), 야학운동을 하다 불온분자로 찍혀 여러 번 유치장을 들나들었던 처지에 도서관 농성에 동참했던 이철국(당시 불어과 4학년, 고양자유학교 대표교사), 도서관에 들어오려다 수위와 실랑이를 벌여 유리창을 깬 이창호(당시 철학과 3학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사) 등이 11.11시위를 함께 이끌다 구속되어 2년에 가까운 옥고를 치른 동지들이었다. 이 밖에도 이름을 모르는 60여 명의 학우들이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제적과 무기정학 등의 학사징계를 받아 대학을 평탄하게 다니지 못하는 풍파를 겪었다.